



대림동성당

(주보성인 : 바오로)

토요 미사	오후 7시 (토요일 저녁 주일미사) ※ 토요일 어린이미사 없음
주일 미사	오전 6시 (일반)
	오전 9시 (중고등부)
	오전 10시30분(교중):1~10구역
	낮 12시(교중):11~20구역
평일 미사	오후 6시 (청년)
	월·수·금·토 : 오전 6시
	화·수·목·금 : 오전 10시
	화·목 : 오후 7시 30분

사무실

주임신부(박성우 사도요한)
보좌신부(이상민 바오로)
수녀원 (장 도미니카 수녀)
(천 바울리나 수녀)
연령회회장(정기원 다마스)
TEL : 02-835-1814~5
(FAX : 02-835-1816)
TEL : 02-835-1813
TEL : 02-835-1812
TEL : 02-835-1810
H.P : 010-5476-6833

고해성사	추후 공지
병자영성체	추후 공지
유아세례	씩수달 두번째 토요일 오후4시30분(사무실에 신청)
혼인면담	매월 두번째 토요일 오전11시 (사무실에 신청)
잠가재차 축복	사무실에 수시로 신청

07440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길 10 (대림1동 919-38) / 홈페이지 <http://daerimcc.or.kr> / 이메일 daerim1004@hanmail.net

✦ 예비자 특별반 모집(2021년 7월 세례반)

코로나19로 번번이 연기되었던 예비자교리를 이번에는 특별반을 신설하여 주임신부님, 보좌신부님, 하상헌 신부님, 도미니카 수녀님과 함께 3개월 교리로 진행하오니 주변 이웃을 많이 초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중지시 비대면 교리 포함)

- 모집기간: 4월 11일(주일)까지
- 환영미사: 4월 11일(주일) 교중미사
- 교리일정: 4월 15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8시

※신청서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군중후원회 회원 모집

군중후원회는 군복무 중인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와 후원을 함으로써 신앙생활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대상: 군복무 중인 가족이 있는 세대와 군중후원회에 관심있는 교우 누구나

※신청서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사순시기 ‘공동 십자가의 길’은 없습니다.

사순시기 매주 금요일마다 대성전에서 함께 봉헌하던 공동 십자가의 길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성전이 열려있는 낮시간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것을 권합니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준수를 위하여 여러명이 함께하거나,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부활대축일 맞이 본당 대청소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신자가 함께하는 대청소는 없습니다. 봉사자 몇분과 직원들이 틈틈이 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청소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전체 청소를 진행하였고, 최근 매일 두 번씩(1·3주 금요일) 전문업체에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 미사 후 수시 소독과 매주 월요일 구역별 청소를 통하여 본당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전입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3월1일~3월7일)

이름	세례명	주소	구역반
이덕옥	요셉	대림동 973번지	2-3

✦ 성당청소 : 3월 15일(월) 19구역 청소

✦ 우리들의 정성(3월1일~3월7일)

주일헌금	4,218,880	건축헌금	580,000	
교무금	11,873,000	성소후원금	527,000	
감사헌금	임재현 알렉시오	20만원	강희섭 요한	5만원
	신미영 올라야나	20만원	문복순 야카다	3만원
	황순분 마리아	10만원	익명	20만원
	이길범 야네스	10만원	익명	5만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공지된 내용들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평화방송 미사 시간

- 평일(월~토): 06시, 09시, 12시, 18시
- 주일: 06시, 09시, 12시, 18시, 21시

[묵상글]

오해

하느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더욱 더 주님의 모상과 닮게 하시기 위해
나의 모난 부분을 깎으실 때
하느님은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고통”이라 부릅니다.

사탄이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질투하여
나를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물질의 부유함과 세상의 즐거움을 풍족히 불어넣어 주었을 때
하느님은 그것을 “유혹”이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축복”이라 부릅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시선으로
하느님의 일들을 바라보기에
나는 하느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하느님의 계획과 뜻을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이 때가 많습니다.

간혹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겠지만
그분은 이해할 대상이 아니라 믿어야 할 대상이기에
늘 하느님과의 시선 맞추기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출처: 한국가톨릭문화원